

차량용 요소 4.3개월분 확보

가격·재고 안정세... 할당관세 연장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제 2의 요소수 대란이 우려됐지만 전국 주요 요소수 판매량 증가에도 가격이나 재고량은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1만기량의 차량용 요소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총 4.3개월 사용분을 확보했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올 연말 종료를 앞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고, 국내 생산도 검토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입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따르면 중국발 요소 수입 차질 이후 전국 주유소 요소수 판매량은 평시 대비 증가세에 있지만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주유소 요소수 판매 가격은 지난 5일 1당 1506원에서 7일 1602원으로 올랐지만 2년전 요소수 대란 때 평소 대비 10배 수준까지 뛰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각 주유소 재고도 96.5%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 이후 중국 이외의 제3국

과 1만기량의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 하면서 국내 재고와 수입예정분을 더한 확보분량은 총 4.3개월분으로 늘었다.

공공비축 물량을 1개월분(6000t)에서 2개월(1만2000t)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조달량이 6000t 추가비축 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분기량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용 요소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검사 기간도 평소 2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중국에 집중된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연말 종료되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한다. 중국(0%)은 물론,

인도네시아(3.3%), 사우디아라비아(6.5%)의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내년 4월까지 산업용과 차량용 요소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국내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매점매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요소수 사재기 등 매점매식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화물·버스·건설기계 업계와 주유소 등에 1인당 요소수 구매 물량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다. 공공비축 요소 중 방출 가능 물량 1930t에 대해 방출 수요조사 거쳐 이달 중 긴급 방출할 예정이다. /뉴스1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도내 농수산물 기업과 함께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수원에서 개최된 '메가쇼 시즌2' 행사에 참가해 전북 공동 홍보관 운영했다.

전북 우수상품 완판 행렬

바이오진흥원, 수원 메가쇼서 홍보관 운영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속적인 원재료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수산물 기업과 함께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수원에서 개최된 '메가쇼 시즌2' 행사에 참가해 전북 공동 홍보관을 운영했다.

바이오진흥원은 도내 수산식품 기업 21개사 및 농식품 기업 10개사와 함께 참여하여 편육, 딱갈비, 곰탕 등 간편식류와 더불어 박대, 전북부엌국, 부각, 추어탕, 건어물 등 수산발키트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서 도내 우수품목에 대한 수도권 소비자의 뜨거운 반

응에 힘입어 해양수산관 약 1억 5300만원, 농식품관 약 7,600여만 원으로 총 2억2,900만 원의 현장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바이어들과의 후속 협상결과에 따라 추가 판매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B2C 박람회인 '메가쇼 시즌2'에서는 박람회의 기본 컨셉을 벗어 던지고 참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색다른 마케팅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특색있는 부스 설치와 산타모자 착용 등 트렌디한 전북관 운영으로 감탄사를 이끌어냈다.

/김옥기 기자



'NH아리아' · 지역사회공헌단 아동복지시설서 봉사활동

전북농협 여성책임자회

전북농협 여성책임자회 NH아리아(회장 정미경)와 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 노조위원장)은 연말연시 따뜻한 나눔 실천 일환으로 지난 9일 아동복지시설 '삼성휴먼빌'에서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북농협 여성책임자(107명)로 구성된 NH아리아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단체인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이 힘을 모아 진행하게 됐다.

5백만원 상당의 농·축산물과 아이들을 위한 물품 등을 전달하고 초·중·고등학생들과 함께 비즈캐릭터 만들기, 레크레이션 등 소풍의 자리를 마련했고, 아이들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했다.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600여명의 전 임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



전북농협 여성책임자회 NH아리아와 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연말연시 따뜻한 나눔 실천 일환으로 지난 9일 아동복지시설 '삼성휴먼빌'에서 봉사활동을 가졌다.

체로 매달 급여의 일정부분을 적립하여 NH해피하우스 주거환경개선 사랑의 쌀·김장김치·연탄 나눔 등 지역 사회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미경 회장(전북혁신도시시지점 지점

장)은 "이번 나눔 실천 활동을 삼성휴먼빌 아이들과 함께하게 되어 행복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농어촌공 전복, 농촌공간

정비사업 시군 워크숍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최근 전북도, 12개 시군 공무원과 함께 2024년 신규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1년 시범지구인 중북 괴산군 영풍군 현장을 방문하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현안 사항 공모 준비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괴산군 청안면 청년 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농촌 난개발 및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 정책 방향에 맞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도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선진 모델인 임실군 청운농촌종합발전사업 현장에서 전북도, 지자체, 전북연구원, 전북대학교 등 전문가들과 함께 "KRC 전북 농어촌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김옥기 기자

하림, 동반성장을 위한 '우수협력업체 간담회' 진행

종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협력업체와 상생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2023 우수협력업체 간담회 및 기술혁신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림은 기술혁신과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의 분야에서 노력해 온 협력업체를 격려, 동반성장 및 상생 협력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매해 우수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하림 정호석 대표이사·임직원들과 우수 협력사인 (주)동방푸드미스타, 대흥살비 주식회사, 피

앤시케이칼의 대표가 참석했다.

하림은 협력업체를 위해 △금융 지원 △인력 지원 △복지시설 개선 △계약 이행 보증금제 △위생 지원 △결재 조건 개선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협력사인 동방푸드미스타는 선진기술과 최신 설비를 도입하여 열지제, 소스 구성품 등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등 경쟁력 확보 및 상호발전의 길을 열었다.

또한 피앤시케이칼은 탈수 응집제와



수산물 나트륨의 대체품을 발굴하는 등 원가 압박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대흥살비는 소방시설과 유틸리티 A/S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상생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대흥살비 이기조 대표는 "우리 협력사들의 열정과 노력을 기억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하림에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마늘·양파, 흙·보온재 덮어야”

농지청, “난지형 품종 재배 중북부 지역 특히 주의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겨울철을 맞아 마늘, 양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언 피해 방지 요령을 소개하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올해 마늘과 양파의 파종 후 날씨를 보면(전남 무안 기준) 11월 상·중순에는 비가 20.3~35.5mm 더 내렸다. 여기에 12월, 내년 2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식물체 생육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마늘 양파는 다른 작목보다 추위에 잘 견디지만, 영하 8도 정도에 이르면 노출되면 언 피해를 볼 수 있다.

난지형 마늘 재배 적지에서 높은 수량을 얻기 위해 난지형 마늘을 심어 언 피해를 본 사례(2018년)가 있었으며, 올해 1월 25일경에도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일부 중북부·산간 지대에서 식물체가 저온 피해로



농촌진흥청이 겨울철을 맞아 마늘, 양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언 피해 방지 요령을 소개하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하얗게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마늘과 양파 뿌리가 땅속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땅이 얼면서 뿌리가 위로 틀리는 서릿발 피해를 보기 쉽다. 서릿발 피해가 발생하면 땅을 눌러 주거나 흙을 덮어주고, 2월 중순 무렵 겨울을 난 모종을 덧심도록 한다. /김옥기 기자